

고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민주주의 정신: ‘아테네’의 메타포를 중심으로*

이 동 수 | 경희대학교

민주주의는 제도화뿐만 아니라 민주정신이 깃들어야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이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텍스트가 고대 그리스 비극작품들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아테네 민주정 시기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공감대를 형성한 일종의 정치적인 혹은 정치교육적인 텍스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해 직접적인 찬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 아테네와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들, 예컨대 테베나 아르고스 등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며 또한 트로이나 콜키스같은 비그리스 지역도 많이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민주정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작품들에서 일종의 메타포(metaphor)로 사용된 ‘아테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메타포 분석을 통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민주정이란 이방인들의 모임으로서 이들 간의 화해가 정치적 정의이며, 입법자이자 범법자인 이중적 정체성을 건디는 자가 정치인이고, 이방인까지도 멤버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그리스 비극,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메타포, 오레스테스, 오이디푸스, 미디어

I. 서론

민주주의는 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인정받고 있다. 근대 이후 진행된 인민주권의 원칙, 자유와 평등의 가치, 삼권분립과 다수결에 의한 결정방식 등은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상정하고 있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롯된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005-J01803).

다.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아테네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까지도 동경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런데 이렇듯 훌륭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는 단지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나 삼권분립과 다수결의 결정방식 등과 같은 제도에 의해서만 탄생되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엔, 당시 아테네인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민주주의 정신이 그런 정체체제의 수립과 지속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즉 아테네 시민들이 생각했던 정치에 대한 관점, 바람직한 정치체제에 대한 모습, 또 정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덕성(virtue) 등에 대한 총체적인 민주주의 정신이 현실세계에서 아테네 민주정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아테네의 민주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텍스트가 바로 그리스 비극 작품들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작품들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아테네 민주주의 시기에 아테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공감대를 형성한 일종의 정치적인 혹은 정치교육적인 텍스트였기 때문이다. 3대 비극시인인 아이스킬로스(Aeschylus: B.C. 525-455), 소포클레스(Sophocles: B.C. 496/495-406), 에우리피데스(Euripides: B.C. 484/480-406)의 작품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보다 당시엔 훨씬 널리 알려졌으며 보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아테네 민주정 연구자들에게엔 이것들이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예컨대 예거(Jaeger 1945, 247)가 말하듯이 “아테네인들은 비극작가들을 정치지도자들의 헌법적 권위보다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로 여겼으며, 태플린(Taplin 1999, 33)의 지적처럼 그리스 비극은 “아테네 도시공동체 구축의 통합원리”로 작동했던 것이다.

비극작품이 아테네인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기와 쇠퇴기인 기원전 5세기와 4세기를 가로지른다. 아테네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인 페르시아 전쟁(B.C. 490-449)과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에서 각각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민주정과 운명을 같이 한 비극은 당시 아테네인들의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아테네에 대한 찬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비극시인들은 아테네를 진정 사랑한 사람들이다. 시대와 출신이 서로 다르지만 아이스킬로스는 페르시아 전쟁 때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 참전했던 용사이며, 모비엔 그 참전들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새겨져 있다. 그리고 소포클레스는 아테네에서 여러 차례 고위직을 수행했으며, 이런 이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요컨대 그리스 비극시인들은 단순한 문인이 아니라 아테네에 대한 자긍심을 지닌 중요한 정치행위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작품이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해 직접적인 찬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당시 아테네와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들, 예컨대 테베나 아르고스 등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트로이나 콜키스 같은 비그리스 지역도 많이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민주정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작품들에서 일종의 메타포(metaphor)로 사용되는 ‘아테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작품들이 아테네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귀결점을 아테네로 모으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여기서 ‘아테네’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도시국가 아테네의 민주정신의 요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이 다루는 텍스트가 문학작품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메타포 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연구방법이라 여겨진다. 메타포는 그리스어 *metapherein*에 그 어원을 둔다. 이때 *metapherein*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를 일컫는데, 이는 전환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거트리(Guthrie 1978, 11)는 메타포를 “시대가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어떤 근본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리코르(Ricoeur 1977)는 메타포란 단순히 표상(representation)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하는 것에 대한 감정(feeling)까지 담아내는 것으로 여긴다. 즉 메타포란 사물을 객관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서 일종의 담론이 되며, 이는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생산되고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리스 3대 비극시인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분석하여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아테네’라는 메타포가 상징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작품분석에서 잘 드러나겠지만 아테네 민주주의 정신을 결론적으로 미리 요약하자면, 민주주의는 ‘이방인들의 모임’으로서 화해와 관용을 가장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이방인들의 모임’은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본문에서는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스(Orestes)에 관한 3부작>과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Oedipus)에 관한 3부작>,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대표작인 <메디아(Medea)>의 내용을 분석하여 메타포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신을 알아보기로 한다.

II. 아이스킬로스에 있어서 정의

주지하다시피, 아이스킬로스는 플라톤이 『국가』(*Republic*)에서 가장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비극시인이다. 플라톤이 보기에, 아이스킬로스는 이데아를 모방하거나 왜곡시킴으로써 시민들을 현혹하고 타락시켰다. 이 점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른 비극시인들처럼 아이스킬로스도 전통적인 신화를 각색하고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아테네 시민들을 현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락시킨 것은 아니다. 이 각색과 왜곡은 진리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정신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의 창조이다.¹⁾ 특히 이 새로운 창조는 아이스킬로스가 생각하는 아테네적인 정의(*justice*)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그의 대표작품인 오레스테스에 관한 3부작 〈아가멤논〉,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과 정의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오레스테스에 관한 3부작〉 내용²⁾

그리스 도시국가 중 하나인 아르고스(Argos)는 그 건설자인 탄탈로스 왕의 손자 대(代)에 이르러 형인 아트레우스와 동생인 티에스테스 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극심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트레우스가 왕위에 오르자, 동생인 티에스테스는 아트레우스의 처인 형수를 유혹하여 정을 통함으로써 분풀이를 했다. 이를 알게 된 아트레우스는 티에스테스의 두 아들을 몰래 죽인 후 티에스테스를 궁중잔치에 초대해 그 시신을 국으로 끓여 대접하여 모욕을 주고, 티에스테스를 아르고스에서 쫓아냈다. 분기맹천한 티에스테스는 와신상담 끝에 아트레우스를 죽여 복수했으나,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다시 티에스테스를 죽여 복수하고 왕위에 등극한다.

아가멤논은 잘 알다시피 트로이 전쟁 시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자이다. 그는 자

1)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Poetics*)에서 플라톤의 비극시인에 대한 비판을 다시 비판하면서 비극시인들의 모방을 창조적 모방(*creative mimesis*)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2) 여기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 작품을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체의 줄거리를 연속된 3부작의 형태로 합하여 또한 극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배경까지도 곁들여 하나의 통일된 내용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3절의 〈오레스테스에 관한 3부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의 동생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가 미모의 부인 헬레네를 트로이 왕국의 파리스 왕자에게 빼앗기자, 이를 그리스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고 그리스 연합군을 총동원하여 트로이로 원정을 떠난다. 그런데 항해를 하던 중 그리스 선단이 폭풍우를 만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큰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고 폭풍우를 무사히 빠져 나와 트로이에 당도한다. 하지만 트로이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한 그리스군은 10년 동안 함락시키지 못하다가 목마전술을 사용하여 겨우 트로이성을 무너트린 후 다시 아르고스로 돌아온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일 뿐, 개선하여 돌아온 날 아가멤논은 자신의 처인 클리타이메스트라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 살인에는 공모자가 있었다. 그는 클리타이메스트라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로서 다름 아닌 앞서 아가멤논에게 죽임을 당한 티에스테스의 셋째 아들이다. 아이기스토스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와신상담하던 중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자 왕비인 클리타이메스트라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고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다. 이때 클리타이메스트라가 아이기스토스의 살인계획에 동의한 이유는 오랫동안 집을 비운 채 전쟁터에 나간 남편에 대한 원망과 큰딸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 죽인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한편 이 비보를 아가멤논의 아들인 오레스테스(주인공)는 외가인 포기스 왕국에서 전해 들었다. 10년 전 오레스테스는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그 대신 큰 누나인 이피게네이아가 함께 배를 타고 갔다가 변을 당했다)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내부반란에 대비해 외가로 보내졌던 것이다. 그런 오레스테스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번민하게 된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며 또한 왕자이기도 한 오레스테스는 국가의 적을 물리쳐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 자신이 복수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민하는 오레스테스에게 복수를 부추긴 것은 바로 아폴론(Apollon) 신이다. 지혜와 정의를 상징하는 아폴론 신은 사(私)보다 공(公)이 중요하며, 사사로이 어머니에 대한 정에 끌리지 말고 왕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고 부추긴다. 그리하여 몰래 아르고스 왕궁에 들어간 오레스테스는 어머니인 클리타이메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를 모두 죽이고 말았다.

그러나 오레스테스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어머니의 망령과 아르고스의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겨아로 쫓기는 신세가 된다.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망령과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기게 되자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오레스테스는 마지막으로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Athena) 여신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 처절을 부

탁한다. 이때 아테나 여신은 자신이 처결하지 않고 아테네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삼아 의견을 물어보는데 우연치 않게도 가부동수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에 아테나 여신은 자신의 캐스팅보트로 오레스테스를 살려주기로 하고 그를 아테네의 시민이 되어 살도록 최종결정을 내린다. 한편 그곳까지 쫓아왔던 아르고스의 복수의 여신들은 이렇게 되면 자신들은 소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르고스로 돌아갈 수 없다고 사정하자, 아테나 여신은 이들을 자비로운 여신들로 바꾸어 아테네에서 같이 살도록 판결을 내린다.

2. 〈오레스테스에 관한 3부작〉 분석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자. 먼저 아르고스의 왕인 아가멤논은 왕이라는 지위가 암시하듯 공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처음엔 동생의 처인 헬레네를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에게 빼앗겼다는 사적인 감정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점차 국가의 승리라는 공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는 등 공을 위해 사를 희생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아가멤논은 “승리자에겐 죄는 없다”(Aeschylus 1998, 75-76), “승리는 고난을 없앤다”(Aeschylus 1998, 86)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반면 클리타임에스트라는 사를 상징한다.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동기가 어떤 공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데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이기스토스의 부추김에 휘말려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은 먼저 딸 이피게네이아를 죽게 한 분노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10년 동안 외롭게 지내면서 두려운 나날을 보낸 데 대한 복수심과도 연결된다. 그 외로운 10년 동안 남편인 아가멤논의 생사조차 몰라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으며, 성적인 외로움 때문에 아이기스토스와 정분이 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클리타임에스트라는 “아가멤논은 자연(nature)을 어겼다”(Aeschylus 1998, 108)고 말하면서, 가족의 이름으로 복수를 결심한다. 요컨대 아가멤논이 가정을 희생시켜 공적인 국가의 영광을 추구한 데 비해, 클리타임에스트라는 가정의 이름으로 공을 담당하고 있는 왕을 희생시킨다.

한편 주인공인 오레스테스야말로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사적으로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죽여야 하는 저주받은 운명이며, 그러나 공적으로는 무너진 국가를 되살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가진 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레스테스는 아가멤논처럼 쉽게 사를 버리고 공을 취하는 자가 아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고민과 운명 속

에 놓여 있는 인간 오레스테스이다.³⁾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회의, 역사에 대한 알미움”(Aeschylus 1998, 147)을 간직한 슬픈 인간이다. 아가멤논처럼 보위에 오르지 못하고,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기며 아테나 여신의 법정에서 가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나약한 인간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스킬로스가 택한 정치적 해결책은 바로 아테나 여신과 아테네로 상징되어 나타난다. 오레스테스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아테나 여신은 현명한 모습을 보여 준다. 아테나 여신은 오레스테스와 복수의 여신들 중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이는 복수의 여신들이 클리타임에스트라를 편들고 아폴론 신이 오레스테스를 편드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여신은 자기 자신이 홀로 판단하지 않고 아테네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 마침 아테네 시민 배심원들도 동수로 판결하여 그 둘 중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테나 여신은 오레스테스와 복수의 여신들을 모두 아테네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양자 간의 화해(reconciliation)를 시도한다.

여기서 아이스킬로스가 아테나 여신과 아테네의 메타포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시한 정의관은 바로 화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련의 과정들이 보여주듯 인간사는 복수로 점철되어 있다. 정쟁에서 패한 티에스테스는 아트레우스의 부인을 간통하고, 이에 기분이 나빠진 아트레우스는 티에스테스의 두 아들을 죽인다. 이에 분노한 티에스테스는 다시 아트레우스를 죽이고, 아가멤논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티에스테스를 죽인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아가멤논은 이제 자기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고, 클리타임에스트라는 티에스테스의 셋째 아들인 아이기스토스와 공모하여 아가멤논을 죽인다. 그리고 오레스테스는 다시 어머니인 클리타임에스트라마저 죽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복수의 연속이 점차 타인에서 자식, 남편, 어머니까지 죽이는 결과를 빚는다. 이는 복수가 가정(house)을 파괴하고, 도시(city)를 파괴하며 결국 자연(nature)까지도 파괴하는 데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사는 갈등의 연속이며, 이는 운명이다. 그런 가운데 갈등은 해결(resolution)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비극성이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의 목표 혹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의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데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관이란 올바른 것을 추구한다거나 인간의 비극성 자체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의 비극적 갈등 속에서 사람들을 여

3) 주지하다시피,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바로 이 오레스테스를 원형으로 하여 태어난 캐릭터이다.

그런 점에서 햄릿은 단순히 근대적 인간의 모습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하히 화해시키나에 달려 있는 것이다.⁴⁾

그런 점에서 아이스킬로스가 말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도시는 선과 악, 공과 사 등과 같은 이분법(dualism)에서 벗어난 도시이다. 만일 폴리스가 부정부패에서 탈피할 수 있다면 이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와도 같이 선을 취해도 악이 남아 있고, 해결된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의는 선의 승리, 공의 승리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간직한 사람들의 화해 속에서 그 갈등을 녹여가는 불완전한 과정인 것이다.

특히 유벤(Euben 1990, 89)은 그리스 비극이 정치적 지혜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고 말한다. 즉 앞서 말한 정의가 화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지식(knowledge)이나 계몽(enlightenment)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수(passion)를 통해 고통(suffering)을 겪으면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pathei mathos’(wisdom comes through suffering)라고 말한다.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인간의 조건이며 이를 겪으면서 지혜를 얻고 그럼으로써 화해라는 정의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작품의 마지막에 그리스 비극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코러스가 즐거운 피날레(joyful finale)를 장식하는데, 이 역시 고통을 축제적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요컨대 아이스킬로스가 제시한 정의란 갈등을 겪으면서 지혜를 얻고 이를 통해 서로 화해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III. 소포클레스에 있어서 정체성

소포클레스는 가장 유명한 그리스 비극 시인이다. 아이스킬로스보다 30년 아래인 소포클레스는 경연에서 가장 많은 1등상을 받았으며, 그리스 정계에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그 역시 오이디푸스에 관한 신화를 각색하여 새롭게 탄생시켰으며, 오늘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오이디푸스 신화보다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절에서는 오이디푸스(Oedipus)에 관한 3부작인 <오이디푸스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에 나타난 인간의 정체성과 정치가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베이컨(Bacon 1982, 108)은 그리스 비극의 본질은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가역불가능성(irreversibility)을 인지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1. 〈오이디푸스 3부작〉 내용

오이디푸스는 원래 테베(Thebes)의 라이오스(Laius)왕과 그의 부인 이오카스테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다. 그런데 그는 기구한 운명 때문에 부모와 헤어져,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

그럼 먼저 라이오스왕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자. 그는 테베의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엘리스의 펠로프스왕의 궁궐로 망명한 적이 있다. 여기서 그는 아름다운 왕자 크리시포스와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펠로프스 왕이 배은망덕한 라이오스에게 “자식을 낳아서 안 되며, 만약 아들을 낳으면 그 손에 죽게 될 것”(Sophocles 1998, 222)이라는 저주를 신탁을 가장하여 내리고 엘리스에서 내쫓는다. 와신상담 끝에 다시 테베로 돌아와 왕위에 오른 라이오스 왕은 오랫동안 자식 소식이 없다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런데 예전의 저주스러운 신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오카스테와 협의 하에 갓난아이인 오이디푸스를 죽이도록 명령한다. 이 임무를 떠맡은 라이오스왕의 양치기는 산 속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코린토스의 폴리보스왕의 양치기에게 이 사실을 의논한다. 그 양치기는 마침 자신의 왕이 아이가 없어 외로워하고 있다면서 오이디푸스를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친자식인 것처럼 꾸며 입양시키고, 라이오스왕의 양치기는 자신의 왕에게 아이를 죽였다고 거짓 보고한다. 시간이 흘러, 어린 시절 폴리보스 왕을 친아버지모만 알고 살던 오이디푸스는 청년이 될 무렵 어느 점술가로부터 “너는 친부를 죽이고 친모와 간통할 운명을 타고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부모를 위해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운명에 괴로워하며 세상을 주유하며 떠도는 신세가 된다.

그러다 한번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저잣거리의 세 갈래 길 중 한 곳을 택해 지나가다 거들먹거리리는 어느 고관대작의 행차와 마주친다. 그 행차의 길잡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키라 하면서 불편을 끼치고 있었다. 그곳을 지나가던 오이디푸스는 젊은 혈기에 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다 오이디푸스가 마차 위에서 자신을 불시에 공격하는 고관대작의 채찍을 피하자 그 고관대작은 마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지게 된다. 오이디푸스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다시 주유길에 오른다.

그러던 어느 날 테베 지역을 지나갈 무렵 오이디푸스는 또 다른 사건에 마주친다. 당시 테베엔 라이오스왕이 갑자기 죽고 없는 상태에서 스프링크라는 괴물이 나타나 길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테베 사람들은 모두 위기에서 구해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이디푸스가 그곳을 지나게 된 것이다. 스팅크스는 수수께끼를 내어 이를 못 맞추면 잡아먹고 맞추면 자신이 사라지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해 죽임을 당하고 있던 터였다. 그 질문은 주지하다시피, “아침엔 다리 넷, 낮엔 다리 둘, 밤엔 다리 셋으로 다니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었는데, 오이디푸스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인간’이라고 맞추게 된다. 오이디푸스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라이오스왕의 양치기에 의해 버려질 때 바둥거리는 두 다리를 묶기 위해 다리를 뚫어 끈으로 묶었던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다리를 조금 절게 된 오이디푸스는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를 구한 오이디푸스는 하루아침에 테베의 영웅이 되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대신 선왕의 왕비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테베 지도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조건이 되었다. 그후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서 폴리네이케스, 에테오클레스, 안티고네, 이스메네 등 2남2녀를 낳고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테베에 재앙이 찾아온다. 테베에 흉년이 들고 여인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델파이 신탁을 청하자, 신탁은 테베의 선왕인 라이오스왕을 죽인 자가 버젓이 테베를 활보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그 자를 찾아 내쫓아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를 위해 진실을 찾고자 한 오이디푸스는 총력을 기울여 살인범 찾기에 골몰한다. 그리하여 테베의 유명한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를 불러 점을 치게 하는데, 테이레시아스는 몸을 떨면서 그 범인을 찾지 말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투철한 국가관에 불타는 오이디푸스는 수소문 끝에 자기를 갖다버린 양치기를 찾아내 심문한 끝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이 라이오스왕의 아들이고, 예전에 저자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죽인 사람이 바로 라이오스왕이며, 자신이 2남 2녀를 낳고 같이 살고 있는 이오카스테가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것이다.

그러자 충격에 휩싸인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그 시체 옆에서 진실도 모르고 살아온 자신을 탓하며 “무엇 때문에 내 눈으로 보아야 하나”(Sophocles 1998, 241)라고 탄식하면서 두 눈을 찔러 장님이 된 채 테베를 떠나 방랑의 길을 떠난다. 테베 사람들은 모두 오이디푸스를 패륜아로 여기며 돌을 던진다. 오이디푸스 곁에는 큰딸 안티고네만이 따르며 장님이 된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는데, 그 둘은 결국 아테네왕 테세우스의

도움으로 아테네 근교 콜로노스(Colonus)⁵⁾에 정착한다. 거기는 “월계수와 올리브와 포도 덩굴이 무성해서 그 속에서는 수많은 꾀꼬리들이 우는 소리가 음악을 이루는”(Sophocles 1998, 254) 곳이다.

한편 오이디푸스가 떠난 테베엔 왕위를 둘러싸고 장남 폴리네이케스와 차남 에테오클레스가 서로 왕위다툼을 벌인다. 이때 외숙부인 크레온의 지지로 에테오클레스가 왕위에 오른다. 쫓겨난 폴리네이케스는 테베와 적대관계에 있는 아르고스와 동맹을 맺고 도움을 받아 테베로 쳐들어간다. 이때 신탁은 두 아들 중 아버지인 오이디푸스가 편들어주는 사람이 승리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제서야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애쓰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내쫓고 권력다툼에만 골몰한 두 아들 중 어느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 콜로노스에 계속 머물다가 자연 속에서 홀연히 사라져 아테네의 수호신이 된다.

한편 전쟁터에서 마주친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예연대로 모두 전사한다. 그러자 테베에선 크레온이 정권을 장악하고 다시 질서를 찾는다. 엄격하고 정당한 정치를 하려는 크레온은 정통성이 있는 에테오클레스는 후히 장사지내는 한편, 국기를 흔든 폴리네이케스는 역적으로 취급하여 장사를 못 지내게 하고 까마귀 밥 신세가 되게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를 수발했듯이 오빠인 폴리네이케스를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사를 지내준다. 여동생 이스메네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지만 냉정한 이스메네는 거절하고 안티고네 홀로 장사를 치른다. 크레온은 국법을 어긴 안티고네에게 화가 나 어두운 무덤 속에 가두고 국가의 위신과 국법의 존엄함을 세우려 한다. 이때 크레온의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하이몬은 약혼녀를 두둔하고 크레온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저항하자, 크레온은 그제서야 안티고네의 방면을 허락한다. 하이몬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말을 달려 안티고네에게 달려갔으나 그녀는 이미 목을 매 자살한 후였다. 이에 분통이 터진 하이몬은 그 곁에서 자살한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하이몬의 어머니이자 크레온의 아내인 에우리디케 역시 아들의 죽음을 서러워하며 자살하고 만다.

5)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는 오이디푸스가 최종 정착하는 곳이 아테네가 아니라 콜로노스로 설정된 것은 이곳이 바로 소포클레스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콜로노스는 아테네의 변두리로서 백토(白土)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곳이며, 소포클레스는 아테네를 염두에 두면서도 고향에 대한 애정과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해 이곳을 정착지로 택했다. 따라서 내용상에 있어서 콜로노스는 메타포 ‘아테네’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2. 〈오이디푸스 3부작〉 분석

이 작품에서 오이디푸스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 그 자체이며, 또한 정치적 인간의 모습도 그를 통해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에 관한 3부작의 핵심은 인간의 아이덴티티 및 정치가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먼저 인간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된 후 친모이자 부인인 이오카스테는 자살한 데 비해 본인은 죽지 않고 장님이 되어 테베를 떠나 유랑의 길을 걷는 것은 인간존재가 길잃은(lost), 집없는(homeless) 존재임을 표상한다. 이는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최후를 콜로노스에서 맞이하지 결코 테베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소포클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존재론적 이중성’(ontological duality)에 두고 있다(Euben 1990, 103-104). 먼저 오이디푸스의 이름에서도 이중성이 나타난다. 원래 극중의 오이디푸스는 ‘꿨은(oidein) 발(pod)’을 의미하는데, 이는 어려서 버려질 때 양치기가 버둥거리는 두 발을 묶기 위해 구멍을 뚫어 엮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발이 꿨아서 절게 된 데 기인한다. 그런데 이런 뜻으로 지어진 오이디푸스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oi-dipous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통과 절규를 의미하는 oi와 두 발을 뜻하는 dipous의 합성어처럼 들린다. 이는 결국 두발 달린 짐승 즉 인간의 고통과 절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의 상징 속엔 ‘인간의 고통과 절규’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오이디푸스가 발을 저는 것도 인간의 내재적 고통을 상징한다. 그리고 pou에 액센트가 있으면 where의 뜻이고 없으면 anywhere의 뜻이 되는데, 이는 인간존재의 ‘장소(혹은 고향)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place)을 의미한다. 요컨대 인간은 정처없이 왔다가 정처없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ho dous는 길(roads)을 뜻하는데, 이는 오이디푸스의 정체성, 고통, 무지가 길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Goldhill 1986, 216-218). 예컨대 오이디푸스가 친부인 라이오스왕을 세 갈래 길에서 우연히 만나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하게 된 것은 그 중 라이오스왕과 마주치게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인데,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에 따라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둘째, 오이디푸스 개인에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그는 스팅크스의 수수계끼를 풀면서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테베인을 안내하는 안내자, 조타수, 자유인, 문명화된 영웅(civilizaed hero)으로 묘사되면서 지성(intelligence)의 대표자로 그려진다. 하지

만 다른 한편 테베에 재앙이 찾아왔을 때 이에 당혹해 하는 자, 라이오스왕을 죽인 범인이 자기 자신인지도 모른 채 예언자의 간언도 뿌리치고 범인을 기어코 찾으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로 그려진다. 즉 오이디푸스는 무지(ignorance)의 대명사인 것이다. 요컨대 지성과 무지를 넘나드는 자, 즉 ‘무지한 지식인’(a ignorant knower)을 상징한다. 눈을 가졌지만 진실을 볼 수 없는 자이며, 이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장님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또한 오레스테스의 경우엔 아폴론 신이나 아테나 여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와주지만, 오이디푸스의 경우엔 신이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 따라서 영웅은 영웅이되 한계지워진 영웅,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절뚝거리는 영웅’(a lame hero)이며, 이것이 오이디푸스라는 캐릭터가 굶은 발이라는 이름을 갖고 절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으로 그려진 이유이다.

셋째, 오이디푸스는 왕으로서도 이중성을 갖는다. 그는 위기에 빠진 테베를 재건하여 새로운 문명과 정치체제를 만들고자 시도하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제정자(law-maker)로 등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자신은 그 법을 어기고 친부를 살해했으며 친모와 간통한 범법자(law-breaker)이다. 오이디푸스는 친부살해(patricide)와 근친상간(incest)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라이오스왕을 살해한 것이 자연세계에서 자신의 야수성을 드러낸 것이라면, 친모와의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곳은 문명화된 도시 속의 중심인 왕궁의 침대이기 때문에 이는 문명세계에서도 인간의 폭력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폭력성(brutality)과 야수성(beastiality)은 자연세계에서나 문명세계에서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중성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용감하게 지성(intelligence)과 정체성(identity)을 추구하지만, 또 이것을 인간 자신이 만든 문명화된 도시에서 추구하지만, 그 자신 이것의 희생자(victim)가 된다. 인간의 이중성은 테베의 왕(king)이지만 폭군(tyrant)인 자, 남편(husband)이지만 아들(son)인 자, 테베를 구한 구원자(savior)이지만 이를 훼손시킨 오염자(pollutor)로 묘사되는 것이다(Euben 1990, 105).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중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즉 인간은 신성과 동물성을 이중적으로 갖고 있어서 어떤 영웅이나 정치가도 이 경계를 넘지 못하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하려 할 때 자신이 수수께끼이며, 불연속적이고, 신성과 동물성 사이를 요동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이중성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며, 완전히 치료되지도 않은 채, 단지 인간의 조건일 뿐이다.

인간의 조건이 이렇다면 과연 정치적 인간 즉 정치가란 누구인가? 정치가의 아이덴티티

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소포클레스의 대답은 결국 정치가의 핵심은 이런 이중성을 견디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중성을 견디는 지혜를 터득한 자만이 인간의 이중성, 폴리스에 내포된 이중성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등장인물들 중 과연 누가 그런 정치적 인간에 가까울까? 등장인물들을 군(群)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극중에서 타살을 당하는 사람들을 검토해 보자. 라이오스왕, 폴리케이네스, 에테오클레스가 그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자신 권력욕에 불타는 이기적 인간이라는 데 있다. 이런 이기적 인간은 결국 폴리스가 용납하지 않으며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마련이다. 다음으로는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이오카스테, 하이몬, 에우리디케 등이 그들인데, 이들은 인간의 이중성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운명을 원망하면서 사라지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폴리스를 이끌 자격이 없다. 안티고네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면이 있다. 일반적인 해석은 안티고네를 하늘의 뜻 혹은 신성함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안티고네의 속성은 천사와 같다고 할 수 있고 하늘을 대변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으나, 소포클레스는 결국 그녀를 죽게 하여 폴리스에서 사라지게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신성함(divinity)은 분명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나 인간의 조건을 감내하는 정치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테베에는 크레온이 남아 통치를 하게 되는데, 크레온은 이오카스테의 남동생으로서 법 질서를 지키려 하는 자, 엄격한 자 등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의 부인과 아들, 그리고 안티고네를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인간의 조건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제야 비로소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도달한 사람은 바로 테베에서 쫓겨나 콜로누스에 정착한 오이디푸스이다. 그는 자신이 “죽인 그 사람의 침실을 바로 그 손으로 더럽힌”(Sophocles 1998, 225)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테베를 떠날 줄 아는 사람이다. 또한 이오카스테나 하이몬, 에테오클레스처럼 슬픔에 잠겨 자살하지 않았던 사람이며, 아들들이 다시 정계에 복귀시키려 하자 권력다툼으로부터 초연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다. 그는 이제 거의 인간으로서 또 정치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상태이지만, 더 이상 테베를 위해서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패륜아인 자기를 받아준 아테네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며, 따라서 콜로누스의 자연 속에서 홀연히 사라져 아테네의 수호신이 된다. 즉 아테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다.

결국 오이디푸스 3부작을 통해 소포클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과 악의 이중성은 인간의 조건이며, 이를 전제할 때 정치가란 이런 이중성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담지하면서

인내하고, 실패하며, 후회하지만, 이를 통해 깨닫고 다시 도전하는 자를 일컫는다. 마치 시지프스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는 자가 바로 정치적 인간이라는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이런 인간의 조건과 정치가의 조건을 담지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아테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IV. 에우리피데스에 있어서 멤버십

에우리피데스는 3대 비극 시인 중 가장 후대의 사람으로서 소크라테스와 친분이 두터웠다. 특히 에우리피데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리스 민주정이 점차 쇠락하던 시기였으며, 스파르타와 싸웠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특히 여성을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시켰으며,⁶⁾ 이방인의 문제, 자유에 관한 문제, 이성의 취약성에 관한 문제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 절에서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메디아(Medea)>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메디아> 내용

앞서 그리스 비극시인들은 기존의 신화를 각색하고 왜곡하여 작품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우리피데스만큼 주객을 완전히 뒤바꾼 적은 없었다. 특히 <메디아>는 원래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이아손(Jason)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주인공을 남자인 이아손이 아닌 여자인 메디아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한 작품이다. 그러면 <메디아>의 줄거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이아손은 그리스 이올코스(Iolkos) 사람으로서 선왕인 아이손(Aison)의 아들이다. 그런데 숙부인 펠리아스(Pelias)가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자, 찾아가서 왕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펠리아스왕은 이아손에게 콜키스(Kolchis)의 아이에테스왕이 황금으로 된 양모피라는 보물을 갖고 있는데 이를 가져오면 왕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모험을 즐기며 영웅심이 많은 이아손은 이를 수락하고, 헤라클레스, 네스토르, 테세우스 등과 같은 쟁쟁한 영웅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빠른 쾌속선인 아르고 선대를 이끌어 보물을 찾아 향해

6) 이런 점 때문에 혹자는 오늘날 페미니즘의 출발을 에우리피데스에서부터 찾기도 한다.

를 떠난다. 이는 그리스인으로서 최초로 그리스 외부지역으로 모험여행을 떠난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콜키스에 도착한 이아손은 우여곡절 끝에 황금 양모피를 손에 넣게 되는데, 여기엔 아이에테스왕의 딸 메디아의 공이 컸다. 메디아는 아버지를 닮은 마법사인데,⁷⁾ 첫눈에 이아손에게 반해 그를 돕기로 작정한다. 이 결심엔 메디아가 세계의 중심인 그리스 지역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도 크게 작용하였다. 하여튼 메디아의 도움으로 황금 양모피를 훔친 두 사람은 함께 콜키스를 빠져나온다. 보물을 빼앗긴 콜키스의 군대가 뒤를 쫓아가자 메디아는 심지어 자신의 여동생들을 죽여 토막을 내 바다에 뿌리기도 한다. 이는 시신을 수습하려는 콜키스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고 도주하는 데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도주에 성공한 메디아는 이아손과 결혼하여 선진문명을 가진 그리스 땅에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남편인 이아손은 보물을 가져온 영웅대접을 받기는커녕 숙부인 펠리아스 왕의 견제를 받아 그에게 보물을 빼앗기고 예전의 지위조차 박탈당하고 만다. 이에 메디아는 복수하기 위하여 펠리아스왕을 독살하고자 결심한다. 그녀는 피를 내어 펠리아스왕의 딸들에게 독약을 주면서 그 약이 왕을 회춘시키는 명약이라고 속인다. 그 약을 먹은 펠리아스왕은 죽게 되고, 이에 분노한 딸들이 이아손과 메디아를 내쫓는다.

그러하여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두 사람은 코린토스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코린토스왕 크레온은 평소 이아손의 영웅성에 반해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딸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아손이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왕위를 잇게 하려고 시도한다. 이아손도 크레온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가족 모두를 위해 자신이 새장가를 가겠다고 하면서 메디아를 설득한다. “이국땅에서 우리가 잘 살려고, 두 아이를 왕족의 지위에 맞게 키우기 위해서”(Euripides 1998, 49)라고 변명을 하면서 결국 메디아를 배신한다. 이에 메디아는 “고향에서 쫓겨나 피난살이의 신세, 남편에게 버림받은 몸”(Euripides 1998, 40)이 되어, 복수를 결심하고 이아손과 크레온왕 딸의 결혼의 부당함을 떠들고 다니자 크레온왕은 메디아에게 추방명령을 내린다.

이에 더욱 분통이 터진 메디아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된다. 그녀는 돌변하여 마치 체념한 듯 하면서 결혼을 축하한다는 뜻으로 이아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들을 시켜 새 신부에게 비단옷과 황금관을 선물한다. 하지만 이 옷과 관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으며,

7) 당시 그리스인들에겐 오리엔트 지역은 미지의 신비한 곳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오리엔트 지역의 왕이나 왕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마법을 지녔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신부는 이것을 입어보다가 결국 죽게 된다. 딸의 주검을 어루만진 크레온왕마저 독에 감염되어 그 옆에서 죽는다. 메디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이아손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조차 자신과 공모했다는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죽이고 만다. 그리고 이아손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은 “친자식을 죽인 어머니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아손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코린토스에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Aigeus)와 함께 용을 타고 유유히 아테네로 떠난다. 아테네의 아이게우스왕은 평소에 메디아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메디아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다는 다짐을 받고 도와주기로 했던 것이다.

2. 〈메디아〉 분석

〈메디아〉는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하지만 그 내용을 크게 바꾼 작품이다.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아손이 주인공이면서 영웅으로 묘사되고 메디아는 악녀로 그려졌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아손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며 메디아가 주인공으로서 동정을 받는 여자로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메디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 외에도 에우리피데스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시켰는데, 이는 여성의 위치가 낮은 그리스의 현실 속에서 에우리피데스가 나름대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염두에 둔 결과라 할 수 있다.

먼저 신화 속 영웅이었던 이아손의 경우, 〈메디아〉에서는 더 이상 운명에 도전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영웅이 아니라 돈과 권력 등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 부인과 가족을 배신하는 이기적 인간으로 묘사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고대적 영웅주의(heroism)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의 영웅주의는 호메로스(Homeros: B.C. 800?-750)에서 잘 나타난다. 그의 〈일리아스〉에서는 트로이 전쟁 영웅들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운명에 대항하는 탁월성(arete)을 지닌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영웅들은 신과의 소통이 가능한데, 이때 신의 존재는 단순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초월성(transcendenc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분노와 감정 등을 추스르고 자신의 초자아(superego)로서 자신을 통제하여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테나 여신은 아킬레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대의 노여움을 진정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만일 그대가 내 말에 복종하겠

다면, 그대들 두 사람을 똑같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염려해 주시는 흰팔의 여신 헤라가 나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 자, 말다툼을 중지하고 칼을 빼지 말도록 하라(Homeros 1987, 14).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진정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자아와 초자아가 충돌하고 초자아로서의 역할을 신이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웅들은 실수없이 자신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영웅성을 칭송받는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이아손은 신과 소통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이기적이며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크레온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다. 이아손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단지 “이국땅에서 우리가 잘 살려고, 두 아이를 왕족의 지위에 맞게 키우기 위해서”라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최초로 비그리스 지역을 탐험하고 황금 양모피를 가져온 그리스의 영웅이었던 이아손은 부인을 배신하고 안락을 쫓는 왜소한 가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반면 미디어는 신화에서는 악녀로 묘사되고 있지만, <미디어>에서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정을 받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는 영웅적 인물로 그려진다. 주지하듯이 미디어의 신분은 콜키스 지방의 공주이기는 하지만, 그리스 여인이 아니다. 그리스를 동경하여 자신의 가족과 왕국까지 배신하고 이아손을 따라온 미디어는 출신상의 차이 때문에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믿었던 남편 이아손의 권력박탈에 대하여 오히려 남편을 대신하여 복수를 시도하는 사람이다. 어찌보면, 미디어는 자신의 남편을 위해 그녀의 삶을 희생해 왔고 악녀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펠리아스왕을 죽여 복수를 한 희생자이다. 적어도 국가나 공(公)을 위한 희생자는 아닐지언정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적으로 희생자인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개인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복수행위를 실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여기서 미디어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녀가 비그리스 지역인 콜키스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barbarian)을 의미한다. 그녀는 주류가 되기 위해 문명의 중심인 그리스를 동경했고, 부모를 배신하고 이아손을 따라 주류세계로 편입되고자 원하였는데, 이아손의 고향인 이올코스에서나 코린토스에서 모두 추방되는 운명을 맞는다. 이는 이방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가 보여준 여러 악행들도 주류에 편입되기 위한 또 그로부터 탈락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미디어는 자신을 “고향에서 쫓겨난 피난살이의 신세이며, 남편에게

버림받은 몸”(Euripides 1998, 40)이라고 한탄하며, “어느 고을에서 나를 맞이해 주지? 어느 친구가 있어 내게 피난처를 주지? 누가 안전한 집과 신변의 보호를 해주지? 아무도 없어”(Euripides 1998, 44)라고 절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이자 이방인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로서 갈 곳이 없는 메디아를 동정하고 받아주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아테네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왕의 복수를 위해 친모를 살해한 변민하는 청년 오레스테스를 받아주고, 의도하지 않게 친부살해와 친모와의 근친상간을 한 ‘무지한 지식인’ 오이디푸스를 받아준 곳이 바로 아테네였듯이, 여성이자 이방인이며 범죄자인 메디아를 받아 준 곳 역시 아테네였던 것이다. 여기서 아테네는 비주류인 사람을 받아주는 포용력 있는 도시로 묘사된다. 메디아는 아테네에 들어감으로써 드디어 자신이 소망했던 비그리스인의 그리스 세계로의 편입을 성취하고 그 공동체의 멤버십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V. 결론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스킬로스는 〈오레스테스 3부작〉을 통해 정치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의란 상호 간의 화해라고 본다. 율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은 일련의 복수의 연속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결국 가정과 도시 그리고 자연까지 파괴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이와 달리 정치적 정의란 고통과 갈등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타인의 존재를 인정(recognition)하고 서로 화해하는 데 있다. 즉 공존(coexistence)이 정의의 핵심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아테네이다.

둘째,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3부작〉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오이디푸스와 같이 이중적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런 이중성은 극복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 그 자체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책임질 정치적 인간 즉 정치가는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인지하고 견디면서 실패를 딛고 부단히 재도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테베 시절의 오이디푸스보다 아테네의 콜로누스 시절 오이디푸스가 이에 더 적합해 보인다.

셋째, 에우리피데스는 〈메디아〉를 통해 정치적 멤버십은 이방인, 비주류 혹은 타자성(ootherness)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공동체의 멤버십은 흔히 배타적이기 쉬운데 설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동경하고 충성심을 갖는다면 구성원으로 받아들

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그리스 지역인 콜키스 사람인 미디어는 이올코스와 코린토스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 쫓겨나지만 민주정을 실행하고 있는 아테네에서는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결국 그리스 3대 비극시인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는 모두 아테네를 최고의 정치공동체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테네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이 아니라 아테네와는 다른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테베나 아르고스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테네라는 메타포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비극작가들이 그리스 신화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수정하여 모티브로 사용한 것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스 비극시인들은 아테네에 대한 충성심과 자긍심이 대단한데, 이는 아테네가 정치공동체가 가져야 할 덕목들, 예컨대 구성원들 간의 화해, 이중적인 인간의 조건을 담지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이방인까지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의 공간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현대 민주주의도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덕목들이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목표로 삼아야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으며, 이중적인 인간의 조건을 신중함과 균형성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방인까지 포용할 줄 알아야만 공동체의 강인함과 지속성이 유지되고 충성을 바칠만한 공동체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스 비극시인들은 아테네가 이런 정치공동체라고 자부하는 것 같다. 혹은 아테네가 설사 그런 공동체로 아직 되지 못했더라도 장차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아테네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대신 아르고스나 테베 혹은 트로이아 등을 거론하면서 아테네를 메타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설사 아테네가 그런 정치공동체였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상관없이, 비극시인들은 그런 공동체를 최상의 정치공동체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의 정치공동체관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정치공동체를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의 공동체”(a community of strangers)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공적인 정치공동체란 사적인 가정과는 달리 동일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이방인들의 모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한편으로는 법이나 제도이며 다른 한편 충성심이나 공동체 의식이다.

그 중 플라톤은 자신의 정의관에 의지하여 잘 편제되고 질서잡힌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과 균형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이에 비해 비극시인들은 현실의 다양성과 선과 악의 이중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고 자유로우며 열린 태도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들의 공동체에는 훌륭한 고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패륜아, 비주류, 야만인, 여성 등과 같이 사회의 소외된 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들도 모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이 바로 비극시인들이 생각했던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여겨진다.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것은 페리클레스의 연설이나 민회의 구성과 같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속을 절절히 파고든 비극작품들에 녹아있는 아테네의 정신, 즉 화해와 인내, 포용이라는 민주정신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덕목도 바로 이것이다. 그 동안 우리가 주력해 왔던 민주화와 그것의 제도화만으로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지 않는다.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지, 또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즉 정치공동체의 목표가 구성원들의 화해와 공존, 더불어 사는 삶에 있음을 직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의 회복이 가장 절실해 보인다.

투고일 2013년 4월 16일

심사일 2013년 4월 29일

게재확정일 2013년 5월 6일

참고문헌

Aeschylus 저. 조우현 외 역. 1998. 『희랍비극 1』. 서울: 현암사.

Euripides 저. 여석기 외 역. 1998. 『희랍비극 2』. 서울: 현암사.

Sophocles 저. 조우현 외 역. 1998. 『희랍비극 1』. 서울: 현암사.

Aristotle. *Poetics*.

Bacon, Helen. 1982. "Aeschylus." In T. James Luce, ed. *Ancient Writers 1*. New York: Charles Scribner and Sons.

Euben, J. Peter. 1990. *The Tragedy of Political Theory: The Road Not Take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ed. 1986. *Greek Tragedy and Political Theory*. Berkeley: UC Press.

Goldhill, Simon. 1986. *Reading Greek Trage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uthrie, W. K. C. 1978. *The Greek Philosophers*. London: Methuen & Co Ltd.

Homeros 저. 천병희 역. 1987. 『일리아스』. 서울: 종로서적.

Jaeger, Werner. 1945. *Paideia: The Ideals of Greek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lato. *Republic*.

Ricoeur, Paul. Robert Czemy, tr. 1977. *The Rule of Metapho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aplin, Oliver. 1999. "Spreading the Word through Performance." In Simon Goldhill and Robin Osborne, eds. *Performance, Culture and Athenian Democracy*, 33-5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Democratic Spirit in Greek Tragedy: Analyzing the Metaphor of ‘Athens’

Dongsoo Lee | Kyung Hee University

Democracy will blossom when its institutionalization is completed and its spiritualization is incarnated. Greek tragedies take special care of the spirit of democracy because they are not simply literary works but texts for political education. They do not make direct expressions on the merits of Athenian democracy, but give us the democratic teachings by dealing with the problems raised in such rival cities as Thebes, Argos and Kolchis and suggesting their solutions with the metaphor of ‘Athens.’ Analyzing that metaphor shown in the texts of Aeschylus, Sophocles and Euripides, we can realize that democratic spirit includes the reconciliation among strangers as political justice, the endurance of dual identity as law-legislator and law-breaker, and the membership open for those who respect the regim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Keywords: Greek Tragedy, Aeschylus, Sophocles, Euripides, Metaphor, Orestes, Oedipus, Media

